

국방대학교 [National Defense University] **이전사업**

2014 . 11. 13

충남북부권역 상생포럼 상임운영위원장
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
최 안 규 박사

전쟁은 국가정책 수행의 한 수단이다

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·경제·외교·사상 등의 부분적 역량이 통합된 국가총력으로 수행된다.

따라서, 국력을 운영하는 군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은 각기 자기의 전담 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타 기관의 업무와 융합시키고, 협조된 정책과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다.

- ▶ **교육기관은 1927년 영국의 국방대학이 창설되어 군 · 관 · 민의 간부들이 정치 · 경제 · 군사적 여러 요소를 조직적으로 연구하게 된다.**
- ▶ **미국은 1946년에 워싱턴시(市)에 NWC(National War College:국방연수원)를 창설하고 3군에서 선발된 장교와 다른 정부기관의 요원을 입학시켜 고도의 정책, 지휘 및 막료로서의 기능, 전략계획작성 임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**

- ▶ 한국은 1955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국방대학으로 창립되었고, 1956년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.
- ▶ 교훈은 조국, 명예, 지성이다.
- ▶ 1957년에 국방연구원으로 개칭하였다.
- ▶ 1961년 국방대학원으로 개칭되었다.
- ▶ 2000년 국방대학원과 국방참모대학(1990년 설립)을 해체하였다.

국가안보종합대학인 국방대학교로

- ▶ 국방부장관의 관장하에 운영되었다.
- ▶ 각군(各軍) 대학을 이수한 고급장교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.
- ▶ 2003년 현재 3개 단과대학(안정보장대학원, 국방관리대학원, 합동참모대학), 단기 직무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4개 교육관련기관(직무연수부 외)이 있다.
- ▶ 부설연구기관으로 안보문제연구소, 합동교리발전부가 있다.

- ▶ 2003년 현재 3개 단과대학(안전보장대학원, 국방관리대학원, 합동참모대학), 단기 직무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4개 교육관련기관(직무연수부 외)이 있다.
- ▶ 부설연구기관으로 안보문제연구소, 합동교리발전부가 있다.
- ▶ 교육과정은 안보과정, 석사과정, 야간석사과정, 합동참모대학 정규과정, 직무연수부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.
- ▶ 수업기간은 안보과정과 합동참모대학 정규과정이 1년(44주), 석사과정이 2년이며 8개의 직무연수과정은 1~12주까지 다양하다.

국가안보는 최고의 가치다.

- ▶ 왜적에 대항하기 위해 10만의 대군을 키워야 한다는 율곡(栗谷) 이이(1536-1584)의 ‘십만 양병(十萬養兵)설’ 이다.
- ▶ 이는 국가의 중요한 핵심과제가 국방이라는 뜻이다.
- ▶ 율곡이 십만의 양병을 건의했다는 것은 율곡 연보 계미년(선조 16년) 4월조와 사계 김장생이 지은 율곡의 「행장」, 월사 이정구가 찬술한 「율곡시장」, 백사 이항복이 찬술한 「율곡신도비명」 및 『선조수정실록』 임오년(선조 15년) 9월조에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후일 정설로 내려오게 된다.
- ▶ 선조 같은 무능한 왕, 그럼에도 불구하고, 한없이 백성을 사랑하는 성웅 이순신 나라와 백성을 구했다.

- ▶ **국방대를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대(부지 112만^m²)로 이전하는 데는 566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**
- ▶ **국가안보는 최고의 가치다.**
- ▶ **국방대학원은 3군 및 정부기관의 요원을 입학시켜 고도의 정책, 지휘 및 막료로서의 기능, 전략계획작성 임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.**

- ▶ **국방대가 이전하면 교직원 518명과 학생 2874명이 이주하는 등 논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**
- ▶ **논산 관계자는 “육군훈련소, 항공학교, 국방대 등이 연계된다. 논산이 국방인재 양성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.**
- ▶ **따라서 인구유입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.**

▶ **KTX 논산 정차역 신설**

- ▶ **논산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들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지역 발전을 위한 건강한 동력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.**

- ▶ **논산은 인구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.**
- ▶ **이는 논산훈련소 면회제도 부활이나 국방대학교 유치와 같은 호재와 더불어 최근 입주한 일련의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.**
- ▶ **지역 발전의 동력은 생산시설의 유치에 있다.
(아산시, 한 기업에서 세수가 2천억 징수)**
- ▶ **게다가 국방대학이 입주한다면, 생기 있는 논산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.**

- ▶ **논산은 인근 지역에 비해 기업유치에 매력적인 입주 조건을 갖추고 있다. (천안, 아산)**
- ▶ **무엇보다 공업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용이하다.**

- ▶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천안아산역 2 ~ 3km 이내의 지가가 평당 150만원 선으로 기업이 진출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.
- ▶ 오송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정지로서 개발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업종의 기업에겐 아무래도 차별이 예상된다.
- ▶ 공주는 다량의 문화재 매장 예상지역으로 토지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.

- ▶ **논산의 경우 현재 필자가 KTX 교차역 신설 부지로 주장하는 채운면 인근의 지가가 평당 10만원 이하이다.**
- ▶ **게다가 금강이 지척이라 풍부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.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부여, 익산, 계룡, 논산 등과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에 있으므로 물류 환경 역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.**
- ▶ **이는 논산시민이 국방대학원을 유치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.**

결론

- ▶ 첫째. 결론적으로 논산은 민관군 상생협력 협의체를 구성한다면,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상생협력이 될 것이다.
- ▶ 둘째. 지역 내에 상생협의체가 결성되면 시너지 효과 크게 나타날 것이다.
- ▶ 셋째. 민.관.군 업무 협조 분야에 있어서 “지역 농산물 이용” (백령도 농수산물 전량 군부대 구매),

- ▶ 넷째. 관은 발 빠른 행정지원(아산시 기업유치)이 필요하다.
* 행정적 지원, 제도적 지원, 세제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.
- ▶ 다섯째. 논산, 계룡, 금산, 공주의 유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, 특히 계룡은 풍부한 군 경력의 자원이 있다.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
- ▶ 여섯째. 상호존중, 공동번영의 정신은 시대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.